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MARCH 03  
2025

#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주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 한(恨)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우리 민족은 하나의 겨레인 한(韓)민족인 동시에 원한이 많은 한(恨)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랫가락이나 유행가인 트로트에도 비극적인 가사가 많고 가락도 구성진 리듬이 많습니다. 같은 새소리도 영마권에서는 “새들이 노래한다(birds are singing)”고 표현하는데, 우리 시조에 보면 “노고지리 우지진다(종달새가 운다)”고 표현합니다. 가슴에 항상 울고 싶은 한이 맺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恨)의 문화는 수탈억압의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하층 민중과 여성은 가진 힘이 없어 한을 풀어야 풀 수가 없었습니다. 한은 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존재에게 억울하게 고통받았을 때 생깁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했을 때 오는 열등감 혹은 결핍감에서 생깁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난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의 노력이나 능력 부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한국인들은 ‘못 배운 것’이나 ‘못 가진 것’에 상당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느낍니다. 남 보기에 부끄럽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한의 문화는 한국인의 자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전에 자녀들에게 학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 때 “아버의 한을 풀어다오”란 말을 자주 쓰곤 했는데 열심히 하라는 좋은 의도였겠지만, 비전 캐스팅치고는 너무 섬뜩한 말입니다. 맺힌 한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자기뿐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맺힌 한(恨)을 제대로 푸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한의 원인을 복수로 제거하는 공격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칼로 복수하는 것은 원수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망하게 만드는 방법, “너 죽고 나 죽는 길”입니다. 둘째는, 내가 성공해 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부자가 되고, 비천한 신분이어서 무시당했다면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식입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이전에는 사법고시 패스는 가난한 집안의 한풀이와도 같은, 인생 역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셋째는 예술로 승화시키는 방법인데 한국의 전통 판소리나 탈춤, 마당놀이 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시원해지거나 평안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여러 가지로 닮은 점이 많은데 특히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을 겪어 왔다는 점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한의 민족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못지않은 한의 민족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무친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한의 문제를 극복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이 맺혔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난 상처가 있는데 인간적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잘못 건드려서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의 문제를 간절한 기도로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 받아야 합니다.

약 3천년 전 아이를 못 가져서 한이 맺혔던 한나라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서러운데 후처 브닌나의 핍박은 더욱 그녀의 고통을 증폭시켰습니다. 한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을 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절박하고 진실하게, 오랜 시간 쉬지 않고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혼돈의 사사 시대를 끝내고 다윗왕을 기름 부음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게 되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그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나만 했습니다. 모세나 예수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많은 영적 공격 속에서도, 부모의 간절한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비상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은 상처와 한(恨)을 녹여내고, 우리 자식 세대에까지 이르는 사랑과 비전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2025.  
03

# SAEROUN

# QT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3	24	25 <b>36</b>	26 <b>37</b>
<b>2</b>	<b>3</b> 대체공휴일	4	5
<b>9</b> 세례식 새가족 126기 1주차 <b>8-9</b> 청년2부 봄 수련회 <b>7-9</b> 청년1부 봄 수련회	10	11	12
<b>16</b>	17	18 마더와이즈 개강	19
<b>23</b>	24	25	26
<b>30</b>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	31	<b>24-26</b> CES 리더십 컨퍼런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7 <b>38</b>	28 <b>39</b>	1 삼일절 <b>40</b>
6	7	8 신임 순장 훈련 아기학교 개강 <b>8-9</b> 청년2부 봄 수련회 <b>7-9</b> 청년1부 봄 수련회
13	14	15
<b>20</b>	21	22
27	28	29

  

2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4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2025. 03

1	토	<b>D-40)</b>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	수 6:10-21
2	주일	부족함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요 2:1-11
3	월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마 25:15-23
4	화	안디옥에 전한 편지	행 15:30-35
5	수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행 15:36-41
6	목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행 16:1-5
7	금	바울이 본 환상	행 16:6-10
8	토	루디아에게 주신 믿음	행 16:11-15
9	주일	병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요 4:46-54
10	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10:46-52
11	화	귀신들린 여종을 고치다	행 16:16-18
12	수	어둠 속에서 드리는 예배	행 16:19-26
13	목	주 에수를 믿으라	행 16:27-34
14	금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다	행 16:35-40
15	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행 17:1-9
16	주일	유다 지파의 용맹	삿 1:1-17
17	월	대적을 손에 붙이신 하나님	창 14:13-20
18	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행 17:10-15
19	수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행 17:16-21
20	목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행 17:22-25
21	금	그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행 17:26-29
22	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행 17:30-34
23	주일	반쪽 승리	삿 1:18-36
24	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 28:10-19
25	화	고린도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다	행 18:1-4
26	수	두려워말며 침묵하지 말라	행 18:5-11
27	목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발하다	행 18:12-17
28	금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행 18:18-23
29	토	담대한 아볼로의 선포	행 18:24-28
30	주일	여호수아의 죽음	삿 2:1-10
31	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 19:1-6

# 새로운 QT

##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 중보기도의 순서

###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훈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순예배시

###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

수 6:10-21

1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1 여호와와 그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12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메고

13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와 그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와 그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14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옛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5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던라

16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7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 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18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와 그의 궤 사이에 들일지니라 하니라

20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02

주일

## 부족함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요 2:1-11

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On the third day a wedding took place at Cana in Galilee. Jesus' mother was there,

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and Jesus and his disciples had also been invited to the wedding.

3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When the wine was gone, Jesus' mother said to him, "They have no more wine."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Woman, why do you involve me?" Jesus replied. "My hour has not yet come."

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s, "Do whatever he tells you."

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Nearby stood six stone water jars, the kind used by the Jews for ceremonial washing, each holding from twenty to thirty gallons.

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Jesus said to the servants, "Fill the jars with water"; so they filled them to the brim.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Then he told them, "Now draw some out and take it to the master of the banquet." They did so,

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and the master of the banquet tasted the water that had been turned into wine. He did not realize where it had come from, though the servants who had drawn the water knew. Then he called the bridegroom aside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and said, "Everyone brings out the choice wine first and then the cheaper wine after the guests have had too much to drink; but you have saved the best till now."

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What Jesus did here in Cana of Galilee was the first of the signs through which he reveal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believed in him.

# 03

월

##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마 25:15-23

15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To one he gave five bags of gold, to another two bags, and to another one bag,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hen he went on his journey.

16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The man who had received five bags of gold went at once and put his money to work and gained five bags more.

17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So also, the one with two bags of gold gained two more.

18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But the man who had received one bag went off, dug a hole in the ground and hid his master's money.

19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After a long time the master of those servants returned and settled accounts with them.

20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The man who had received five bags of gold brought the other five. 'Master,' he said, 'you entrusted me with five bags of gold. See, I have gained five more.'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His master replied,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22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The man with two bags of gold also came. 'Master,' he said, 'you entrusted me with two bags of gold; see, I have gained two more.'

23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His master replied,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 04

화

## 안디옥에 전한 편지

행 15:30-35

30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So the men were sent off and went down to Antioch, where they gathered the church together and delivered the letter.

31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The people read it and were glad for its encouraging message.

32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Judas and Silas, who themselves were prophets, said much to encourage and strengthen the believers.

33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After spending some time there, they were sent off by the believers with the blessing of peace to return to those who had sent them.

34 (없음)  
(empty)

35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But Paul and Barnabas remained in Antioch, where they and many others taught and preached the word of the Lord.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05

수

##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행 15:36-41

36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Some time later Paul said to Barnabas, "Let us go back and visit the believers in all the towns where we preached the word of the Lord and see how they are doing."

37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Barnabas wanted to take John, also called Mark, with them,

38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려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but Paul did not think it wise to take him, because he had deserted them in Pamphylia and had not continued with them in the work.

39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They had such a sharp disagreement that they parted company. Barnabas took Mark and sailed for Cyprus,

40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but Paul chose Silas and left, commended by the believers to the grace of the Lord.

41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He went through Syria and Cilicia, strengthening the churche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06

목

##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행 16:1-5

- 1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Paul came to Derbe and then to Lystra, where a disciple named Timothy lived, whose mother was Jewish and a believer but whose father was a Greek.

- 2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The believers at Lystra and Iconium spoke well of him.

- 3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앎이러라

Paul wanted to take him along on the journey, so he circumcised him because of the Jews who lived in that area, for they all knew that his father was a Greek.

- 4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As they traveled from town to town, they delivered the decisions reached by the apostles and elders in Jerusalem for the people to obey.

- 5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So the churches were strengthened in the faith and grew daily in numbers.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07

금

## 바울이 본 환상

행 16:6-10

- 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Paul and his companions traveled throughout the region of Phrygia and Galatia, having been kept by the Holy Spirit from preaching the word in the province of Asia.

- 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When they came to the border of Mysia, they tried to enter Bithynia, but the Spirit of Jesus would not allow them to.

- 8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 So they passed by Mysia and went down to Troas.

-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During the night Paul had a vision of a man of Macedonia standing and begging him,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 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After Paul had seen the vision, we got ready at once to leave for Macedonia, concluding that God had called us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08

토

## 루디아에게 주신 믿음

행 16:11-15

11 우리가 트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트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

From Troas we put out to sea and sailed straight for Samothrace, and the next day we went on to Neapolis.

12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From there we traveled to Philippi, a Roman colony and the leading city of that district of Macedonia. And we stayed there several days.

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On the Sabbath we went outside the city gate to the river, where we expected to find a place of prayer. We sat down and began to speak to the women who had gathered there.

14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One of those listening was a woman from the city of Thyatira named Lydia, a dealer in purple cloth. She was a worshiper of God. The Lord opened her heart to respond to Paul's message.

15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When she and the members of her household were baptized, she invited us to her home. "If you consider me a believer in the Lord," she said, "come and stay at my house." And she persuaded us.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09

주일

## 병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요 4:46-54

46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Once more he visited Cana in Galilee, where he had turned the water into wine. And there was a certain royal official whose son lay sick at Capernaum.

47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When this man heard that Jesus had arrived in Galilee from Judea, he went to him and begged him to come and heal his son, who was close to death.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Unless you people see signs and wonders," Jesus told him, "you will never believe."

49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The royal official said,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50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Go," Jesus replied, "your son will live." The man took Jesus at his word and departed.

51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While he was still on the way, his servants met him with the news that his boy was living.

52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When he inquired as to the time when his son got better, they said to him, "Yesterday, at one in the afternoon, the fever left him."

53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Then the father realized that this was the exact time at which Jesus had said to him, "Your son will live." So he and his whole household believed.

54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This was the second sign Jesus performed after coming from Judea to Galilee.

## 10

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10:46-52

- 46 그들이 예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Then they came to Jericho. As Jesus and his disciples, together with a large crowd, were leaving the city, a blind man, Bartimaeus (which means "son of Timaeus"), was sitting by the roadside begging.

- 47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When he heard that it was Jesus of Nazareth, he began to shout,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 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Many rebuked him and told him to be quiet, but he shouted all the mor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 49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Jesus stopped and said, "Call him." So they called to the blind man, "Cheer up! On your feet! He's calling you."

- 50 맹인이 겹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Throwing his cloak aside, he jumped to his feet and came to Jesus.

- 51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Jesus asked him. The blind man said, "Rabbi, I want to see."

-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Go," said Jesus, "your faith has healed you." Immediately he received his sight and followed Jesus along the road.



# 11

화

## 귀신들린 여종을 고치다

행 16:16-18

16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Once when we were going to the place of prayer, we were met by a female slave who had a spirit by which she predicted the future. She earned a great deal of money for her owners by fortune-telling.

17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She followed Paul and the rest of us, shouting, "These men are servants of the Most High God, who are telling you the way to be saved."

18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She kept this up for many days. Finally Paul became so annoyed that he turned around and said to the spiri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to come out of her!" At that moment the spirit left her.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12

수

## 어둠 속에서 드리는 예비

행 16:19-26

19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려 갔다가

When her owners realized that their hope of making money was gone, they seized Paul and Silas and dragged them into the marketplace to face the authorities.

20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They brought them before the magistrates and said, "These men are Jews, and are throwing our city into an uproar

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by advocating customs unlawful for us Romans to accept or practice."

22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The crowd joined in the attack against Paul and Silas, and the magistrates ordered them to be stripped and beaten with rods.

23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After they had been severely flogged, they were thrown into prison, and the jailer was commanded to guard them carefully.

24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When he received these orders, he put them in the inner cell and fastened their feet in the stocks.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and the other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26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Suddenly there was such a violent earthquake that the foundations of the prison were shaken. At once all the prison doors flew open, and everyone's chains came loos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13

목

## 주 예수를 믿으라

행 16:27-34

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The jailer woke up, and when he saw the prison doors open, he drew his sword and was about to kill himself because he thought the prisoners had escaped.

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But Paul shouted, "Don't harm yourself! We are all here!"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The jailer called for lights, rushed in and fell trembling before Paul and Silas.

30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He then brought them out and asked,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They replie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you and your household."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Then they spoke the word of the Lord to him and to all the others in his house.

33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At that hour of the night the jailer took them and washed their wounds; then immediately he and all his household were baptized.

34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The jailer brought them into his house and set a meal before them; he was filled with joy because he had come to believe in God—he and his whole househol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14

금

##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다

행 16:35-40

35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들을 놓으라 하니

When it was daylight, the magistrates sent their officers to the jailer with the order: "Release those men."

36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The jailer told Paul, "The magistrates have ordered that you and Silas be released. Now you can leave. Go in peace."

37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  
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  
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  
가야 하리라 한대

But Paul said to the officers: "They beat us publicly without a trial, even though we are Roman citizens, and threw us into prison. And now do they want to get rid of us quietly? No! Let them come themselves and escort us out."

38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  
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  
하여

The officers reported this to the magistrates, and when they heard that Paul and Silas were Roman citizens, they were alarmed.

39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They came to appease them and escorted them from the prison, requesting them to leave the city.

40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  
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After Paul and Silas came out of the prison, they went to Lydia's house, where they met with the brothers and sisters and encouraged them. Then they left.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15

토

##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행 17:1-9

- 1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When Paul and his companions had passed through Amphipolis and Apollonia, they came to Thessalonica, where there was a Jewish synagogue.

- 2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As was his custom, Paul went into the synagogue, and on three Sabbath days he reasoned with them from the Scriptures,

- 3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explaining and proving that the Messiah had to suffer and rise from the dead. "This Jesus I am proclaiming to you is the Messiah," he said.

- 4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Some of the Jews were persuaded and joined Paul and Silas, as did a large number of God-fearing Greeks and quite a few prominent women.

- 5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But other Jews were jealous; so they rounded up some bad characters from the marketplace, formed a mob and started a riot in the city. They rushed to Jason's house in search of Paul and Silas in order to bring them out to the crowd.

- 6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But when they did not find them, they dragged Jason and some other believers before the city officials, shouting: "These men who have caused trouble all over the world have now come here,

- 7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and Jason has welcomed them into his house. They are all defying Caesar's decrees, saying that there is another king, one called Jesus."

- 8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When they heard this, the crowd and the city officials were thrown into turmoil.

- 9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Then they made Jason and the others post bond and let them go.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16

주일

유다 지파의  
용맹

삿 1:1-17

- 1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After the death of Joshua, the Israelites asked the LORD, "Who of us is to go up first to fight against the Canaanites?"

-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The LORD answered, "Judah shall go up; I have given the land into their hands."

- 3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The men of Judah then said to the Simeonites their fellow Israelites, "Come up with us into the territory allotted to us, to fight against the Canaanites. We in turn will go with you into yours." So the Simeonites went with them.

- 4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섹에서 만 명을 죽이고

When Judah attacked, the LORD gave the Canaanites and Perizzites into their hands, and they struck down ten thousand men at Bezek.

- 5 또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It was there that they found Adoni-Bezek and fought against him, putting to rout the Canaanites and Perizzites.

- 6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Adoni-Bezek fled, but they chased him and caught him, and cut off his thumbs and big toes.

- 7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칠십 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므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Then Adoni-Bezek said, "Seventy kings with their thumbs and big toes cut off have picked up scraps under my table. Now God has paid me back for what I did to them." They brought him to Jerusalem, and he died there.

- 8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The men of Judah attacked Jerusalem also and took it. They put the city to the sword and set it on fire.

- 9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After that, Judah went down to fight against the Canaanites living in the hill country, the Negev and the western foothills.

- 10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They advanced against the Canaanites living in Hebron (formerly called Kiriath Arba) and defeated Sheshai, Ahiman and Talmi.

- 11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From there they advanced against the people living in Debir (formerly called Kiriath Sepher).

- 12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And Caleb said, "I will give my daughter Aksah in marriage to the man who attacks and captures Kiriath Sepher."

- 13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옷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Othniel son of Kenaz, Caleb's younger brother, took it; so Caleb gave his daughter Aksah to him in marriage.

- 14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One day when she came to Othniel, she urged him to ask her father for a field. When she got off her donkey, Caleb asked her, "What can I do for you?"

- 15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She replied, "Do me a special favor. Since you have given me land in the Negev, give me also springs of water." So Caleb gave her the upper and lower springs.

- 16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The descendants of Moses' father-in-law, the Kenite, went up from the City of Palms with the people of Judah to live among the inhabitants of the Desert of Judah in the Negev near Arad.

- 17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 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Then the men of Judah went with the Simeonites their fellow Israelites and attacked the Canaanites living in Zephath, and they totally destroyed the city. Therefore it was called Hormah.

# 17

월

## 대적을 손에 붙이신 하나님

창 14:13-20

13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벨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A man who had escaped came and reported this to Abram the Hebrew. Now Abram was living near the great trees of Mamre the Amorite, a brother of Eshkol and Aner, all of whom were allied with Abram.

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When Abram heard that his relative had been taken captive, he called out the 318 trained men born in his household and went in pursuit as far as Dan.

15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원편 호바까지 쫓아가

During the night Abram divided his men to attack them and he routed them, pursuing them as far as Hobah, north of Damascus.

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He recovered all the goods and brought back his relative Lot and his possessions, together with the women and the other people.

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After Abram returned from defeating Kedorlaomer and the kings allied with him, the king of Sodom came out to meet him in the Valley of Shaveh (that is, the King's Valley).

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Then Melchizedek king of Salem brought out bread and wine. He was priest of God Most High,

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and he blessed Abram, saying, "Blessed be Abram by God Most High, Creator of heaven and earth.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And praise be to God Most High, who delivered your enemies into your hand." Then Abram gave him a tenth of everything.



# 18

화

##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행 17:10-15

10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As soon as it was night, the believers sent Paul and Silas away to Berea. On arriving there, they went to the Jewish synagogue.

1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Now the Berean Jews were of more noble character than those in Thessalonica, for they received the message with great eagerness and examined the Scriptures every day to see if what Paul said was true.

12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As a result, many of them believed, as did also a number of prominent Greek women and many Greek men.

13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뢰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But when the Jews in Thessalonica learned that Paul was preaching the word of God at Berea, some of them went there too, agitating the crowds and stirring them up.

14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The believers immediately sent Paul to the coast, but Silas and Timothy stayed at Berea.

15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Those who escorted Paul brought him to Athens and then left with instructions for Silas and Timothy to join him as soon as possible.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19

수

##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행 17:16-21

16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While Paul was waiting for them in Athens, he was greatly distressed to see that the city was full of idols.

17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So he reasoned in the synagogue with both Jews and God-fearing Greeks, as well as in the marketplace day by day with those who happened to be there.

18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A group of Epicurean and Stoic philosophers began to debate with him. Some of them asked, "What is this babbling trying to say?" Others remarked, "He seems to be advocating foreign gods." They said this because Paul was preaching the good news about Jesus and the resurrection.

19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Then they took him and brought him to a meeting of the Areopagus, where they said to him, "May we know what this new teaching is that you are presenting?"

20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 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You are bringing some strange ideas to our ears, and we would like to know what they mean."

21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All the Athenians and the foreigners who lived there spent their time doing nothing but talking about and listening to the latest idea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20

목

##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행 17:22-25

22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Paul then stood up in the meeting of the Areopagus and said: "People of Athens! I see that in every way you are very religious.

23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For as I walked around and looked carefully at your objects of worship, I even found an altar with this inscription: TO AN UNKNOWN GOD. So you are ignorant of the very thing you worship—and this is what I am going to proclaim to you.

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The God who made the world and everything in it is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and does not live in temples built by human hands.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And he is not served by human hands, as if he needed anything. Rather, he himself gives everyone life and breath and everything els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21

금

## 그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행 17:26-29

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From one man he made all the nations, that they should inhabit the whole earth; and he marked out their appointed times in history and the boundaries of their lands.

27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God did this so that they would seek him and perhaps reach out for him and find him, though he is not far from any one of us.

28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For 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As some of your own poets have said, 'We are his offspring.'

29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Therefore since we are God's offspring, we should not think that the divine being is like gold or silver or stone—an image made by human design and skill.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22

토

##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행 17:30-34

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In the past God overlooked such ignorance, but now he commands all people everywhere to repent.

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For he has set a day when he will judge the world with justice by the man he has appointed. He has given proof of this to everyone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32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들겠다 하니

When they heard about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some of them sneered, but others said, "We want to hear you again on this subject."

33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At that, Paul left the Council.

34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Some of the people became followers of Paul and believed. Among them was Dionysius, a member of the Areopagus, also a woman named Damaris, and a number of other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23

주일

## 반쪽 승리

삿 1:18-36

18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Judah also took Gaza, Ashkelon and Ekron—each city with its territory.

19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The LORD was with the men of Judah. They took possession of the hill country, but they were unable to drive the people from the plains, because they had chariots fitted with iron.

20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As Moses had promised, Hebron was given to Caleb, who drove from it the three sons of Anak.

21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The Benjamites, however, did not drive out the Jebusites, who were living in Jerusalem; to this day the Jebusites live there with the Benjamites.

22 요셉 가문도 벰엘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Now the tribes of Joseph attacked Bethel, and the LORD was with them.

23 요셉 가문이 벰엘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When they sent men to spy out Bethel (formerly called Luz),

24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the spies saw a man coming out of the city and they said to him, "Show us how to get into the city and we will see that you are treated well."

25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찢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So he showed them, and they put the city to the sword but spared the man and his whole family.

26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 곳의 이름이 되니라

He then went to the land of the Hittites, where he built a city and called it Luz, which is its name to this day.

27 므낫세가 벰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므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But Manasseh did not drive out the people of Beth Shan or Taanach or Dor or Ibleam or Megiddo and their surrounding settlements, for the Canaanites were determined to live in that land.

- 28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When Israel became strong, they pressed the Canaanites into forced labor but never drove them out completely.

- 29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Nor did Ephraim drive out the Canaanites living in Gezer, but the Canaanites continued to live there among them.

- 30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Neither did Zebulun drive out the Canaanites living in Kitron or Nahalol, so these Canaanites lived among them, but Zebulun did subject them to forced labor.

- 31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Nor did Asher drive out those living in Akko or Sidon or Ahlab or Akzib or Helbah or Apehek or Rehob.

- 32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The Asherites lived among the Canaanite inhabitants of the land because they did not drive them out.

- 33 납달리는 벵세메스 주민과 벵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벵세메스와 벵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Neither did Naphtali drive out those living in Beth Shemesh or Beth Anath; but the Naphtalites too lived among the Canaanite inhabitants of the land, and those living in Beth Shemesh and Beth Anath became forced laborers for them.

- 34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The Amorites confined the Danites to the hill country, not allowing them to come down into the plain.

- 35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And the Amorites were determined also to hold out in Mount Heres, Aijalon and Shaalbim, but when the power of the tribes of Joseph increased, they too were pressed into forced labor.

- 36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The boundary of the Amorites was from Scorpion Pass to Sela and beyond.

## 24

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 28:10-19

- 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 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 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 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 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 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이름을 뒀고
- 19 그 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 25

화

## 고린도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다

행 18:1-4

1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After this, Paul left Athens and went to Corinth.

2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  
 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  
 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  
 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There he met a Jew named Aquila, a native of Pontus, who had recently come from Italy with his wife Priscilla, because Claudius had ordered all Jews to leave Rome. Paul went to see them,

3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  
 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and because he was a tentmaker as they were, he stayed and worked with them.

4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  
 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Every Sabbath he reasoned in the synagogue, trying to persuade Jews and Greeks.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26

수

## 두려워말며 침묵하지 말라

행 18:5-11

- 5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When Silas and Timothy came from Macedonia, Paul devoted himself exclusively to preaching, testifying to the Jews that Jesus was the Messiah.

- 6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But when they opposed Paul and became abusive, he shook out his clothes in protest and said to them, "Your blood be on your own heads! I am innocent of it. From now on I will go to the Gentiles."

- 7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Then Paul left the synagogue and went next door to the house of Titius Justus, a worshiper of God.

- 8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Crispus, the synagogue leader, and his entire household believed in the Lord; and many of the Corinthians who heard Paul believed and were baptized.

- 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One night the Lord spoke to Paul in a vision: "Do not be afraid; keep on speaking, do not be silent.

-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For I am with you, and no one is going to attack and harm you, because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 11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So Paul stayed in Corinth for a year and a half, teaching them the word of God.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27

목

##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발하다

행 18:12-17

12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While Gallio was proconsul of Achaia, the Jews of Corinth made a united attack on Paul and brought him to the place of judgment.

13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This man," they charged, "is persuading the people to worship God in ways contrary to the law."

14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주는 것이 옳거니와

Just as Paul was about to speak, Gallio said to them, "If you Jews were making a complaint about some misdemeanor or serious crime, it would be reasonable for me to listen to you.

15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But since it involves questions about words and names and your own law—settle the matter yourselves. I will not be a judge of such things."

16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So he drove them off.

17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Then the crowd there turned on Sosthenes the synagogue leader and beat him in front of the proconsul; and Gallio showed no concern whatever.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28

금

##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행 18:18-23

18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Paul stayed on in Corinth for some time. Then he left the brothers and sisters and sailed for Syria, accompanied by Priscilla and Aquila. Before he sailed, he had his hair cut off at Cenchreae because of a vow he had taken.

19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 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They arrived at Ephesus, where Paul left Priscilla and Aquila. He himself went into the synagogue and reasoned with the Jews.

20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When they asked him to spend more time with them, he declined.

21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But as he left, he promised, "I will come back if it is God's will." Then he set sail from Ephesus.

22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When he landed at Caesarea, he went up to Jerusalem and greeted the church and then went down to Antioch.

23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After spending some time in Antioch, Paul set out from there and traveled from place to place throughout the region of Galatia and Phrygia, strengthening all the disciples.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29

토

## 담대한 아볼로의 선포

행 18:24-28

24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Meanwhile a Jew named Apollos, a native of Alexandria, came to Ephesus. He was a learned man, with a thorough knowledge of the Scriptures.

25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He had been instructed in the way of the Lord, and he spoke with great fervor and taught about Jesus accurately, though he knew only the baptism of John.

26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He began to speak boldly in the synagogue. When Priscilla and Aquila heard him, they invited him to their home and explained to him the way of God more adequately.

27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When Apollos wanted to go to Achaia, the brothers and sisters encouraged him and wrote to the disciples there to welcome him. When he arrived, he was a great help to those who by grace had believed.

28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For he vigorously refuted his Jewish opponents in public debate, proving from the Scriptures that Jesus was the Messiah.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30

주일

## 여호수아의 죽음

삿 2:1-10

- 1 여호와와 사사가 길갈에서부터 보킴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The angel of the LORD went up from Gilgal to Bokim and said, "I brought you up out of Egypt and led you into the land I swore to give to your ancestors. I said, 'I will never break my covenant with you,

- 2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and you shall not make a covenant with the people of this land, but you shall break down their altars.' Yet you have disobeyed me. Why have you done this?

- 3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And I have also said, 'I will not drive them out before you; they will become traps for you, and their gods will become snares to you.'

- 4 여호와와 사사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When the angel of the LORD had spoken these things to all the Israelites, the people wept aloud,

- 5 그러므로 그 곳을 이름하여 보킴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and they called that place Bokim. There they offered sacrifices to the LORD.

- 6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After Joshua had dismissed the Israelites, they went to take possession of the land, each to their own inheritance.

- 7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The people served the LORD throughout the lifetime of Joshua and of the elders who outlived him and who had seen all the great things the LORD had done for Israel.

- 8 여호와와 종 누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매

Joshua son of Nun, the servant of the LORD, died at the age of a hundred and ten.

- 9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And they buried him in the land of his inheritance, at Timnath Heres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north of Mount Gaash.

- 10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After that whole generation had been gathered to their ancestors, another generation grew up who knew neither the LORD nor what he had done for Israel.

# 31

월

##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 19:1-6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삼 개월 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after the Israelites left Egypt—on that very day—they came to the Desert of Sinai.

2 그들이 르비딴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After they set out from Rephidim, they entered the Desert of Sinai, and Israel camped there in the desert in front of the mountain.

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Then Moses went up to God, and the LORD called to him from the mountain and said,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descendants of Jacob and what you are to tell the people of Israel:

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You yourselves have seen what I did to Egypt, and how I carried you on eagles' wings and brought you to myself.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Now if you obey me fully and keep my covenant, then out of all nations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Although the whole earth is mine,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you will be for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These are the words you are to speak to the Israelites."



2025.  
03

# 순예배 가이드

01

**1. 3월 셋째 주 (3/16-22)**

반쪽 승리 (삿 1:18-36)

**2. 3월 넷째 주 (3/23-29)**

여호수아의 죽음 (삿 2:1-10)

**3. 4월 첫째 주 (3/30-4/5)**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삿 2:11-23)

03

[순예배 가이드] 3월 셋째 주 (3/16-22)

반쪽 승리

사사기 1:18-36

지난주 본문 요약 | 유다 지파의 용맹 (삿 1:1-17)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하셨고, 유다 지파는 시므온 족속과 함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과 헤브론, 남방지역까지 점령하였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18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Judah also took Gaza, Ashkelon and Ekron—each city with its territory.

19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The LORD was with the men of Judah. They took possession of the hill country, but they were unable to drive the people from the plains, because they had chariots fitted with iron.

20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As Moses had promised, Hebron was given to Caleb, who drove from it the three sons of Anak.

관찰/해석

21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The Benjamites, however, did not drive out the Jebusites, who were living in Jerusalem; to this day the Jebusites live there with the Benjamites.

22 요셉 가문도 벰엘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Now the tribes of Joseph attacked Bethel, and the LORD was with them.

23 요셉 가문이 벰엘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When they sent men to spy out Bethel (formerly called Luz),

24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the spies saw a man coming out of the city and they said to him, "Show us how to get into the city and we will see that you are treated well."

25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So he showed them, and they put the city to the sword but spared the man and his whole family.

\* 선대하다(24절): 호의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뜻입니다.



관찰/해석

26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 곳의 이름이 되니라

He then went to the land of the Hittites, where he built a city and called it Luz, which is its name to this day.

27 므낫세가 뱌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므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But Manasseh did not drive out the people of Beth Shan or Taanach or Dor or Ibleam or Megiddo and their surrounding settlements, for the Canaanites were determined to live in that land.

28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When Israel became strong, they pressed the Canaanites into forced labor but never drove them out completely.

29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Nor did Ephraim drive out the Canaanites living in Gezer, but the Canaanites continued to live there among them.

30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Neither did Zebulun drive out the Canaanites living in Kitron or Nahalol, so these Canaanites lived among them, but Zebulun did subject them to forced labor.

관찰/해석

31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훔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Nor did Asher drive out those living in Akko or Sidon or Ahlab or Akzib or Helbah or Aphek or Rehob.

32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 이었더라

The Asherites lived among the Canaanite inhabitants of the land because they did not drive them out.

33 납달리는 뱌세메스 주민과 뱌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뱌세메스와 뱌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Neither did Naphtali drive out those living in Beth Shemesh or Beth Anath; but the Naphtalites too lived among the Canaanite inhabitants of the land, and those living in Beth Shemesh and Beth Anath became forced laborers for them.

34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The Amorites confined the Danites to the hill country, not allowing them to come down into the plain.

35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And the Amorites were determined also to hold out in Mount Heres, Aijalon and Shaalbim, but when the power of the tribes of Joseph increased, they too were pressed into forced labor.

36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던

The boundary of the Amorites was from Scorpion Pass to Sela and beyond.

관찰/해석

묵상노트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주님의 말씀 한절 한절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세상적인 미련을 결연하게 잘라낼 수 있도록 굳센 믿음과 결단력을 주셔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삿 1:19]**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 04

[순예배 가이드] 3월 넷째 주 (3/23-29)

## 여호수아의 죽음

사사기 2:1-10

### 지난주 본문 요약 | 반쪽 승리 (삿 1:18-36)

이스라엘의 지파들(유다,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이 가나안 땅의 남은 족속들을 쫓아내기 위해 싸웠으나,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주 설교 나눔

#### 관찰/해석

1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킴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 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The angel of the LORD went up from Gilgal to Bokim and said, "I brought you up out of Egypt and led you into the land I swore to give to your ancestors. I said, 'I will never break my covenant with you,

2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and you shall not make a covenant with the people of this land, but you shall break down their altars.' Yet you have disobeyed me. Why have you done this?

#### 관찰/해석

3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And I have also said, 'I will not drive them out before you; they will become traps for you, and their gods will become snares to you.'

4 여호와와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When the angel of the LORD had spoken these things to all the Israelites, the people wept aloud,

5 그러므로 그 곳을 이름하여 보킴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and they called that place Bokim. There they offered sacrifices to the LORD.

6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After Joshua had dismissed the Israelites, they went to take possession of the land, each to their own inheritance.

7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The people served the LORD throughout the lifetime of Joshua and of the elders who outlived him and who had seen all the great things the LORD had done for Israel.

\* **가시(3절):**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타락한 인간을 상징하며,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 **올무(3절):** 세나 짐승을 잡은 덫(올가미)이나 함정을 말하며, 상징적으로 '악의 유혹', '고난', '고통과 멸망', '실족시키거나 범죄케 하는 유혹거리' 등을 뜻합니다.

관찰/해석

8 여호와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매

Joshua son of Nun, the servant of the LORD, died at the age of a hundred and ten.

9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 아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And they buried him in the land of his inheritance, at Timnath Heres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north of Mount Gaash.

10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 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After that whole generation had been gathered to their ancestors, another generation grew up who knew neither the LORD nor what he had done for Israel.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한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2.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3.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기억하며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만 섬기며, 다음세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삿 2:7]**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 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를 섬겼더라

# 01

[순예배 가이드] 4월 첫째 주 (3/30-4/5)

##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사사기 2:11-23

### 지난주 본문 요약 | 여호수아의 죽음 (삿 1:18-36)

여호와의 사자가 가나안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상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고,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죽게 되자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1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Then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and served the Baals.

12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They forsook the LORD, the God of their ancestors, who had brought them out of Egypt. They followed and worshiped various gods of the peoples around them. They aroused the LORD's anger

13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because they forsook him and served Baal and the Ashtoreths.

관찰/해석

1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In his anger against Israel the LORD gave them into the hands of raiders who plundered them. He sold them into the hands of their enemies all around, whom they were no longer able to resist.

15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Whenever Israel went out to fight, the hand of the LORD was against them to defeat them, just as he had sworn to them. They were in great distress.

16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Then the LORD raised up judges, who saved them out of the hands of these raiders.

17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Yet they would not listen to their judges but prostituted themselves to other gods and worshiped them. They quickly turned from the ways of their ancestors, who had been obedient to the LORD's commands.

\* **바알(13절):**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농사)의 신이자, 가축떼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多産)의 신이며, 전쟁을 주관하는 셈족 최고의 신으로 가나안 원주민의 주신(主神)입니다.

\* **아스다롯(13절):** '번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고대 근동의 여신이자, 바알의 배우자 신으로 인식되며,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로 사랑과 쾌락,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 **사사(16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군사·정치 지도자로,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 정치나 군사 분야로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위기에 구하는 구원자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관찰/해석

18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Whenever the LORD raised up a judge for them, he was with the judge and saved them out of the hands of their enemies as long as the judge lived; for the LORD relented because of their groaning under those who oppressed and afflicted them.

19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But when the judge died, the people returned to ways even more corrupt than those of their ancestors, following other gods and serving and worshiping them. They refused to give up their evil practices and stubborn ways.

2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Therefore the LORD was very angry with Israel and said, "Because this nation has violated the covenant I ordained for their ancestors and has not listened to me,

21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 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I will no longer drive out before them any of the nations Joshua left when he died.

22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와 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I will use them to test Israel and see whether they will keep the way of the LORD and walk in it as their ancestors did."

23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지 아니하셨더라

The LORD had allowed those nations to remain; he did not drive them out at once by giving them into the hands of Joshua.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세상의 풍요와 쾌락 앞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늘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3. 세상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사 2:18]**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 개인기도제목 - 1주차

날짜	기도제목	응답



# 개인기도제목 - 2주차

날짜	기도제목	응답





2025.  
03

#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간증

02

1. 전해정 성도 (우면공동체)
2. 김은정J 집사 (W서초공동체)
3. 강지혜A 성도 (우면공동체)
4. 엄지희A 집사 (C강남공동체)
5. 한혜림 성도 (N강남공동체)
6. 윤연미 집사 (S서초공동체)
7. 구요한 성도 (N강남공동체)

## 늦밤을 보면 살리라

전혜정 성도 (우면공동체)



저희 친정엄마는 2009년도에 폐암 초기진단을 받으시고 한쪽 폐의 절반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발되어 지금까지 표적치료제를 쓰며 3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와 진료를 받아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 특새를 코앞에 두고 엄마의 기침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저희 엄마의 상태를 면밀히 보시고는 진료 중에 잠시 어머니는 나가 계시라고 하시고는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담당 교수님 말로는 폐에 흉수가 왔는데 5년 동안 먹었던 약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치료제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흉수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면 예후는 상당히 좋지 않은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도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큰 고난이 오는 것은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큰 그릇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고통은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울부짖었습니다.

2년 전 여동생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이제 겨우 치유되어가고 있었는데, 또다시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낙심되는 마음으로 겨우 예배드리러 나온 제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불평불만보다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라. 늦밤을 보면 살리라.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고난의 늪에 빠지지 말고 십자가 위에 주님을 보라” 그렇게 기도 하는 중에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심을 느끼며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공동체 순식구들, 예이비 식구들, 중보기도팀 그리고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서 올라오는 기도문들을 보며 저는 또 기도의 빛진 자가 되었고 동시에 기도문은 입원해 계신 엄마에게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흉수에서 암세포는 검출되지 않았고, 아주 절망적이진 않다고 말씀하시는 담당 교수님도 적잖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기적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엄마가 오히려 막내아들에게 ‘너도 하나님을 믿어라. 나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라고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의 끝에 우리 가족을 모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뱀에 물려도 늦밤을 보면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저도 제 상처와 고통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저를 회복시키실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강한 힘으로 저를 다시 일으키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 저희 집에는 돌탕도 집탕도 아닌 청개구리 신자가 있습니다

김은정J 집사 (W서초공동체)



저희 집에는 돌탕도 집탕도 아닌 청개구리 신자가 있습니다. 바로 둘째 아이 딸, 대학교 3학년입니다. 온 가족이 2018년에 새로운교회로 오

게 되면서 큰 아이, 아들들은 감사하게도 대학부로 잘 적응해서 자신의 믿음으로 입교 후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아부 교사로, 또 25년부터 순장으로 자기 믿음의 여정을 잘 가고 있는데, 둘째는 고등부에 1년 반 넘게 나가다가 코로나 시간을 겪으며, 반수도 하고 그 뒤 대학교에 가서 주니어 청년부를 잠깐 갔다가 그만져 가지 않고 대예배만 드리다가 이젠 제 옆에 앉아 자리에 앉으면 민망할 정도로 목이 꺾이도록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예배가 끝나고 자신도 민망해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는 졸더라도 예배는 빠지지 않고 따라오고 신기하게도 졸면서도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춘, 그러나 힘들고 중요한 문제 앞에 엄마 기도에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주신다니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귀여우면서도 답답했던 둘째의 모습에 청년부에 가면 좋겠다고 재촉하면 청개구리 같이 동네 교회 간다는 협박 앞에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25년 특새는 시작되었고 1월 4일 토요일 새벽 담임목사님께서 기도 할 때 호호하게, 뭉뚱그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

서 정말 이날은 남편의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임 받도록, 그리고 둘째가 청년의 때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 앞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 둘째가 할 얘기가 있다며 대학 입학 후 자신감이 무너지는 힘들 겪었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마음 아픈 상처를 겪고 나서 고민한 결과 학교 밴드부를 들어갈까, 늦었지만 CCC를 가볼까, 새로운교회 주니어 청년부를 가볼까 하는 물음에 저희 부부는 이구동성으로 주니어 청년부라고 외쳤고 평소 쿨하고 결단력이 있던 둘째는 (속마음으로는 아빠, 엄마가 어떤 결정을 가장 좋아할지 결정해 놓고 물어본 것 같은) 그럼 내일 주일부터 주니어 청년부를 가겠다고 선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1월 5일부터 대예배 후 주니어 청년부 예배를 참석했고 장기결석자로 분류되어 있다가 지난주까지 착실하게 3주간 새가족 훈련을 받고 이제 순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청개구리처럼 살지 않고, 마음 변하지 않고 순배정받아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될 딸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 제목을 수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쓰임 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는 시간이 되는 청년의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인생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는 멋진 딸을 기대합니다.

## 큰 소리도 아닌, 멧쩍은 저의 기도가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강지혜A 성도 (우면공동체)



저희 어머니는 망막 색소변성증을 진단 받고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고 시각장애 증상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빠진 어머니는 점점 아는 사람들의 반가운 인사를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게 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예배 끝나고 누가 어머니께 정말 반갑게 인사해 주시길래 '누구세요?' 물었더니 '네. 한 흥 목사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에 보이던 것이 점점 보이지 않고 할 수 있던 일들을 못 하게 되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면서 어머니의 어려움과 고통은 커져만 갔고 딸로서 곁에서 지켜보는 저 역시 못지않게 괴로웠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려고 만들어둔 구조물이나 길가에 세워둔 자전거나 키펠드에 부딪쳐 멍이 드는 날이 많아지고 컵이나 그릇이 깨지고 음식을 쏟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핸드폰도 그렇고 인덕션,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 터치패드로 된 기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매일 먹는 약도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크기나 모양이 다른 그릇에 담아

야 했고 그 위치를 모두 기억해야 했습니다. 틈틈이 찾아오는 우울감은 날 선 말로 가족의 가슴을 베었고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모르는 저의 분노는 매 순간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평생을 새벽예배를 드렸던 어머니에게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다. 유명한 병원은 다 가봤지만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느냐. 흰 지팡이 사용법과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사용법을 익히라'며 사탄마귀에게 틈을 아주 넓게 내주었습니다. 출산 전까지는 어머니 모시고 기도원도 가고 뉴져교사도 하고 성경공부도 했으나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기적을 보여주시 때가 되지 않았냐며 교만을 떨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마주하는 절망감과 무력감을 이겨내기 위해 '새로운교회' 앱에서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하셨으나 저는 그때마다 가르쳐드리는 것을 귀찮아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낙망의 분위기를 심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다칠까 봐 걱정도 되는 마음에 차라리 새벽예배를 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사실 그건 제 속의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새벽예배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새벽길을 걸어 어렵

게예배당에 도착해도 어두운 조명 속에 빈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시작되면 환하게 전체 조명이 들어오니 그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방법을 터득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이 더욱 보이지 않게 되자 골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새벽예배에 가고 싶다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성도님이 새벽예배에 갈 때 집 앞으로 데리러 갈 테니 같이 손잡고 걸어가지고 먼저 제안해 주셨습니다.

길도 미끄럽고 날씨도 추운데 출근 전에 잠깐 모셔드리기만 할까 했던 발걸음이 변하여 어느새 제가 특새를 통해 눈물 흘리며 은혜받고 있습니다. 주일말씀 중에 다윗에게 온갖 상처를 주었던 나발이 바로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누군가의 아비가일이 되어 그 분노를 멈추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바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광야 학교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며 지금 바로 낙망이, 두려움이,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벽예배 어느 날, 큰 소리도 아니니 멧쩍은 저의 기도가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날 선 말로 상처를 주고받던 모습을 회개하고 제 귀와 입술을 부드럽게 바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말이라 깜짝 놀랐고 깨달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울부짖는 기도를 아주 가까이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이 보였고 외로움과 절망감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을 통해 함께 손잡아주셨던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머니를 알아보시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손 내밀어주시고 순간순간 잊지 않고 돌봐주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감을 누군가 같이 짐을 들어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조차 힘을 잃었는데 그저 차가운 마음이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고 손에 붙어만 있자 했더니 하나님은 제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탄에게 틈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낙망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안의 낙망이, 두려움이,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 새로운교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엄지희A 집사 (C강남공동체)



올해 1월 13일, 검진차 병원에 가셨던 친정어머니는 혈당이 800이 넘게 나오며 케토산합병증으로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차차 호전되시는 듯하여 일반실로 옮기셨다가 23일 새벽에 자가호흡이 안 되어 중환자실로 급히 옮기게 되었고 이틀 만에 신장 투석도 시작하셨습니다. 10일간의 금식과 신장투석으로 인해 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장 어머니의 B+혈액 혈소판을, 전혈의 혈액형이 아닌 혈소판을,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구해 오라고 했습니다. 흔한 혈액형이지만 친족과 친척이 수혈할 경우엔 15배 이상의 부작용이 나기에 전혀 모르는 타인으로부터 수혈해야 해서 바로 생각나는 교회와 대학 동기, 아파트 반상회, 동창회들에게 연락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휴 시작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게다가 혈소판 수혈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아스피린/탈모약 복용자 헌혈 불가, 전날 수면 4시간 이상 자만 헌혈 가능, 임신/출산/유산 경험자 또는 가능성 있는 자 헌혈 불가라서 대부분의

기혼 여성들은 헌혈이 안 되고, 65세 이상도 헌혈이 불가했습니다.

작년에 참여했던 LTS, C강남공동체, 뉴젠 유치부에 계속 피를 구한다는 공지를 부탁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건강했던 어머니가 2주도 안돼서 이 지경까지 되시다니.. 갑자기 피를 구하라니... 그것도 이런 연휴에..'

그런데 기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가는 시간을 미루고서 <헌혈의 집>으로 뛰어가던 집사님, 사역 마치고 제일 먼저 뛰어가셨으나 혈압 때문에 헌혈을 거절당하신 목사님, 2주 전에 다녀온 신혼여행으로 헌혈 못한 뉴젠 선생님, 65세가 넘으셔서 나이제한 때문에 헌혈을 못하신 장로님, <헌혈의 집> 오픈하자마자 아이들을 데리고 헌혈하러 가 주신 장로님, 40대 이상의 중년층들은 대부분 당뇨약과 혈압약, 출산 여성들은 혈소판 수혈이 안 된다고 하니, 아들의 20대 주니어 청년 친구들이 <헌혈의 집>으로 뛰어갔다는 이야기는, 피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제자들의 모습들 같아서 눈물을 안 흘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수혈받은 피가 병원으로 트랜스 되

는 시간을 기다리시지 못하고 월요일 오전 11시 46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번 헌혈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은 저에게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진심을 알려주신 분들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참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 새로운교회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기 전 농담이라고 하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내가 목숨을 내놓으면 네 동생네도 예수님 믿을까?" 이번 장례를 계기로 동생 내외도 우리 교회 장례팀의 섬김에 큰 감동을 받고 감사를 느끼며, 살고 있는 동네의 교회라도 출석을 시작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셔서 동생네도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특별새벽예배가 저와 우리 가정에 영적 선전포고를 하는 시간입니다

한혜림 성도 (N강남공동체)



저희 가정은 작년 생 각하지도 못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의 이유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저는 A형 독감, 5개월 된 딸은 요로감염과 인후염, 남편은 체력적으로 탈진한 가운데 연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송구영신예배를 집에서 드리면서 올해는 건강문제와 아이 문제로 특새를 드리기 어렵겠다고 생각하며 미리부터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를 새벽마다 깨워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은혜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새 첫 주부터 한 홍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것이며 정확한 목표를 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는 작년에 뜻하지 않게 직장을 사직하게 되었고, 쉽게 풀릴 것 같았던 취업이 쉽게 되지 않아 미래와 재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매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하소연하듯 낙담하는 기도가 매일매일 이어졌습니다. 하

지만 놀랍게도 새벽예배를 나오면서 낙담의 기도는 소망의 기도로 바뀌게 되었고, 건강의 문제재정의 문제를 모두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핑계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1월 3일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니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지독한 독감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식도로 침을 삼킬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통증이 사라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저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딸아이가 요로감염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했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 신장에 이상이 생겼을 것이라며 대학병원으로 꼭 가야 한다고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대학병원 진료 잡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소아과에서 저희 집 사정을 알고 다른 대학병원을 예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도와주는 것을 보니 “정말 큰일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딸 신장에 아무 이상도 없고 요로감염도 완치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적은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되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와 기적은 남편이었습니다. 신앙이 깊지 않았던 남편과 신앙생활 하면서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고, 교회에 대한 생각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올해 성경 통독을 제안했고, 매일 특새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이어 나갔고, 어느 날

새벽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나의 산소망’ 등 찬양을 틀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삶 속에 크고 작은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새벽예배가 저와 우리 가정에 영적 선전포고를 하는 시간이며 살아 있는 예배를 드리는 기적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매일 새벽을 깨워 갖 나온 호빵처럼 따끈따끈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며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불같은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신 예수님, 새로운교회와 한 홍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가족의 전통이 된 40일 특새

윤연미 집사 (S서초공동체)



10년 전, 신년 40일 특별새벽기도회(이하 특새)를 한다는 광고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거다!’ 싶었습니다. 믿음의 1세대로서 아이와 함께

참여했던 아기학교에서 “가정에 가족만의 신앙 전통이 있으면 좋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저희 가정에도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신앙 전통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만으로) 겨우 세 살, 그리고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몰라도 40일 동안 새벽기도라니? 신앙이 절대 따라오지 않을 거야!”라는 이상한 확신(?)이 저를 사로잡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의 유치원 등록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례없이 경쟁이 치열해서 공립 유치원에 자리가 없었고, 사설 시설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과 저 몰래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 아이가 공립유치원에 갈 수 있다면, 저도 40일 특새에 나가겠습니다.”

10년 전, 신년 40일 특별새벽기도회(이하 특새)를 한다는 광고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거다!’ 싶었습니다. 믿음의 1세대로서 아이와 함께

참여했던 아기학교에서 “가정에 가족만의 신앙 전통이 있으면 좋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저희 가정에도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신앙 전통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만으로) 겨우 세 살, 그리고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몰라도 40일 동안 새벽기도라니? 신앙이 절대 따라오지 않을 거야!”라는 이상한 확신(?)이 저를 사로잡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의 유치원 등록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례없이 경쟁이 치열해서 공립 유치원에 자리가 없었고, 사설 시설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과 저 몰래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 아이가 공립유치원에 갈 수 있다면, 저도 40일 특새에 나가겠습니다.”

비드 덕분에(?) 캐나다에서도 새로운교회의 모든 설교를 라이브로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새와 특새플러스를 통해 40일을 훌쩍 넘은 시간 동안 매일의 만남을 공급받으며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설교노트를 라인방에 올렸더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정리공주”라는 별명도 붙여 주셨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과 더욱 가까워졌고, 어릴 때 외국에 나오면 한국어를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아이의 한국어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일취월장!, 영의 양식인 만나로 영이 살찌고 나날이 발전하는 가정식 덕분에 육신도 함께 살찌며 저희 가족은 더욱 끈끈한 전우애까지 다져갔습니다.

그렇게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앞서가셔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손을 굳게 붙들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제 저희 가정에는 아주 특별한 가족 전통이 생겼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과 새해 첫 두 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드리는 전통입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아빠 등에 업혀 특새에 나오던 아이가 어엿한 중학생이 되어 이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시간을 내어 특새를 드리는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대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매일 성경을 읽는지 점검도 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우리 가족만의 신앙 전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교회! 아자아자 특새 파이팅!



## 매일 우리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기적입니다

구요한 성도 (N강남공동체)



2024년 특새를 마치고, 약 한 달이 지난 4월 초, 네 돌을 앞둔 저희 둘째 여름이가 다리를 절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월 8일 월요일, 병원에 데려가니 괜찮다고 좋아질 거라고 했지만 절뚝거리는 것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3일이 지나고 다른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근육이 긴장해서 그런 것 같고,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일주일 만에 부축 없이는 쉽게 걸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4월 15일 월요일, 소아과에 데려가니 여러 가지 검사 후에 뇌종양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오진이 없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른 소아정형외과에 데려갔는데 동일하게 뇌종양이 의심되니 최대한 빨리 큰 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여름이는 뇌종양 및 여러 질병 의심으로 아산병원 소아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여름이의 증상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입원한 첫째 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둘째 날이 되니 다리를 잘 들어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증상이 빠

르게 나빠지는 모습에 새로운교회 등록한 지 11년 만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처음으로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통역팀, 중보기도팀, 남성1순, 부모님 교회, 친척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상황을 알리고 중보를 부탁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고, 이제는 손에도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다리는 올라가지 않고, 손에 힘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제 손을 꼭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MRI, CT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치의 분들은 여러 심각한 질환들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발에 힘이 빠지고, 호흡기나 심장의 근육의 힘이 빠질까 봐 절규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을 살려주세요. 차라리 저를 대신 데려가 주세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3일 동안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해보았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했습니다. 문득, 각자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여름이와 엄마가 병실에서, 저와 첫째가 집에서 영상통화로 함께 기도를 드렸습

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힘들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기도를 마치고 30분도 되지 않은 12시 1분, 와이프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여름이가 다리를 들었어요!’ 제 귀를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며 영상통화를 켜었습니다. ‘여름아, 다리 올릴 수 있어?’ 여름이는 두 다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여름이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축을 받고 걷기 시작하더니, 입원한 지 6일 차 토요일에는 아예 두 발로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지 7박 8일 만에 걸어서 퇴원하였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서는 원인미상의 바이러스성 질병이었고, 완벽히 회복했으니 다시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정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통역팀을 섬기면서 팀원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기적 체험이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나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우리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것이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섭리이자 기적이니,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큰 기적을 부러워했음을 회개합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여름이는 이전보다 건강해졌고,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 하고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저희 집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가족처럼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통역팀, 중보기도팀, 남성1순, 김정현 목사님, 한 홍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  
03

# 일본 비전트립 간증

03

1. 김용정 목사 (위례새로운교회)
2. 김종제 장로 (C강남공동체)
3. 노영한 지휘자 (3부 성가대)
4. 조현희 전도사 (영아부)





## 앞으로 힘들 때마다 나가사키의 기억을 새기고 힘내겠습니다

김용정 목사 (위례새로운교회)

먼저 정말 귀한 기회를 주신 한 홍 목사님과 새로운교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아내에게 큰 위로와 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교회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떠나는 당일 새벽까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이웃 교회와 작년 1년간 기도하며 논의하고 준비했던 '건물 공유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파탄난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원로들의 극심한 반대로 애초 의결했던 당회가 결국 저희 교회에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당장 성도들과 예배드릴 곳을 찾을 수 없어 앞이 캄캄했고, 배신감과 자괴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공항에서 오랜만에 뵙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지만 정신은 다른데 가 있었고, 비행기를 어떻게 탔는지 어느새 일본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첫째 날 자비에르 기념관 탐방을 마치고 밤을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나가사키 26성인 순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가이드의 설명 중에 순교 당시 12살 소년이었던 '루도비코'의 이야기를 듣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리디 여리 소년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십자가는 어디입니까?"라고 외쳤다는 말에 큰 절림이 왔습니다. 저는 저의 십자가를 찾기 보다는 피하고 도망치기만 했는데...

순교 광장에서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방문한 하우스텐보스에서 매우 굿은 날씨였지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비, 눈, 우박, 햇빛, 무지개를 한꺼번에 경험하게 되었는데, 지금 저에게 닥친 비, 우박이 곧 개이고 찬란한 무지개가 뜰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아름다운 무지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위례에 딱 맞는 소극장과 일사천리로 논의가 되어서 3월부터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귀국한 그 주주일 예배에서 성도님들께 그간의 사정을 다 설명했고 진심으로 제 미숙함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유목민처럼 예배장소를 떠돌면서도 단 한 번도 질문이나 불평하지 않았던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분들이 제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지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출국 전에는 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귀국하는 발걸음은 정 반대로 가볍고 소망으로 차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일정에 초대해 주신 한 홍 목사님과 새로운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녹록지 않은 상황들을 헤쳐 나가야 하겠지만, 그때마다 '나가사키의 기억'을 새기고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순교의 땅에서 다시 뜨거워진 믿음

김중제 장로 (C강남공동체)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저를 포함한 총 38명이 나가사키 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제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가사키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 자비에르 기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자비에르는 16세기 예수회 선교사로, 일본에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보며, 저는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의 감격과 오늘날 신앙을 지키는 어려움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나가사키 니시자카 언덕에 있는 26성인 순교지를 방문했는데 이곳은 1597년, 26명의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자리입니다. 그중에서도 12살 소년 루도비코가 남긴 한마디는 저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소년이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신앙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음 날, 우리는 나가이 다카시 박사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나가이 박사는 원자폭탄 피해 속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도 피폭으로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이 가득한 나가사키에서 끝까지 희망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

통 속에서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신앙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구마모토성을 방문했는데 이곳은 일본 장수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의 울산성을 본떠 만든 성입니다. 울산성 전투에서 살아남은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의 성벽 구조를 일본에 가져와 이곳을 건축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조선 침략한 자가 결국 조선의 것을 배워 자기 나라를 지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도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왕국은 변하고 성벽도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벽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번 비전트립은 단순한 해외 방문이 아니라, 저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그 땅에서, 저 역시 내 삶 속에서 작은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살아가야 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가사키에서 들었던 한 목소리가 아직도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저도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자리에서, 나의 삶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 나의 생명은 오직 주의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노영한 지휘자 (3부 성가대)

‘주님, 제 삶은 왜 이렇게 버겁고 힘들죠?’ ‘남들 에겐 그냥 평범한 일상인데.. 제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왜 이리도 무겁고 끝이 없는 거죠?’ ‘주님, 당신을 찬양하는 예배자, 노래하는 성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서원 기도는 나의 욕심이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실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 가난한 환경에서 클래식 전공을 시작하고 유학까지 다녀오면서 혼자 수없이 내뱉던 말입니다. 참 많은 어려움과 오해 속에서 휘몰아치는 소용돌이를 정면으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면서 평생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 섬김을 감당하면서 저의 의는 높아져 있었고, 기복 신앙적인 마인드로 제가 목표하고 기도하는 제 목표들은 당연히 주실 거라 기대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클래식 전공이라 그런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보다.’, ‘속도가 조금 느린가보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제가 마주한 상황과 시련들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크고 말도 안되는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목표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시간이 걸려서도 아니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서고 그러다 쓰러지면 또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묵묵히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힘이 온전히 빠졌을 때 전심으로 십자가를 찾기 시작하면서 제 입술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라는 고백이 기쁨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의 마음으로 2년 전 귀국 후 새로운교회 지휘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신앙이 아닌 미래의 신앙도 아닌 오늘의 신앙!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고백처럼 지난 2년 동안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 된 2025 일본 나가사키 순교 유적지 Vision Trip! 수많은 나라를 다니며 공연하고 해외 찬양 선교를 다녀오던 일본은 처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였습니다. 방문할 기회도 없었지만 반일 감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순교지 탐방으로 일본을? 심지어 천주교 성지가 많은 지역을?’ 이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사키 ‘26 성인 순교지’를 다녀온 후 많은 울림과 감동으로 변하였습니다. 26인 중 가장 어렸던 12살 소년의 고백..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의 어린 소년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왔습니다. 출고 배고픈 고통을 넘어서 순교자의 확고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살처럼 보일 만큼 힘들고 아파했던 저의 삶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그들처럼 묵숨 걸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들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12살 소년처럼 고백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나의 자랑은 오직 주의 십자가’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자랑을 넘어.. ‘나의 생명은 오직 주의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던 비전트립

조현희 전도사 (영아부)

새로운 한 해의 시작, 특별새벽기도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초대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18일 차, 믿음의 가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며, 광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믿음을 검증받는 곳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검증”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심기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다시 이 삶을 올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일본 비전트립에 이 마음도 함께 실어 후쿠오카와 나가사키 순교 유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해 냉소적이라 생각했던 일본의 순교 유적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하나님의 눈으로 일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땅을 향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지 기도하며 기대하는 발걸음 가운데 담임목사님의 설명을 통해 장소마다 영적인 의미를 알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일본인 20명과 외국인 6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한 나가사키 ‘26 성인 기념관’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땅에 발을 딛고 있을 때 왈각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니시자카 언덕에 준비된 26개의 십자가를 보며 12살 소년이 “이 중에 제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라고 묻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과연 내 안에는 어떤 믿음의 결

단과 삶이 있는지, 작은 어려움에도 광야라 여기며 불평의 입술로 믿음 없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가이 다카시 기념관을 통해 민족을 향한 태도와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원자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2차 대전으로 인한 일본의 비극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전해주고, 마음을 치유한 믿음의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 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진 땅이었습니다.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음을 증명해 내는 하나님께 검증된 삶을 올려 드린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영적 불모지가 된 그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으로 일본의 영적 회복을 위해 었드리고 싶은 마음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일본 땅을 향한 순교자들의 삶처럼, 제게 주신 은혜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며, 광야의 시간을 통해 믿음을 검증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걸어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  
03

# SBSB 간증

04

1. 박은아B 성도 (S강남공동체)
2. 엄정민 성도 (청년1부)



##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박은아B 성도 (S강남공동체)



처음 교회 광고를 보고 'SBSB 왕초보 성경 공부'를 알게 되었을 때 "저건 나를 위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이제 2년이 되었지만 성경 통독을 한 번

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혼자서 한번 해보아야 했던 통독은 레위기에서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 속에 정말 위기를 맞고 진척이 없었습니다. 일찍 신청 마감이라 대기를 걸어놓고 누군가 취소가 되면 들어가야 하고 기다리던 중 자리가 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설렘반 기대반으로 8:30부터 11:30까지의 3시간의 수업시간 동안 졸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빠지지 않고 수업을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매번 기도하며 수업에 임했습니다. 강정현 사모님의 수업은 3시간이라는 수업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강의 때마다 직접 찍으신 사진이며 그랜드캐년에서 사 오셨다며 들고 오신 화석이며 금순 청년 한 분이 만들어줬던 성막까지 들고 오셔서 정말 수업에 진심어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강의 때 반짝이는 눈망울과 소녀 같은 미소와 목소리까지 정말 사모님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 사모님을 보며 저 역시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며 처음 궁금했던 것은 선악과

가 없었다면 원죄가 처음부터 들어오지도 않았고 선과 악도 생기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을 다른 누군가도 똑같이 질문을 했고 수업을 통해 그 답을 들었습니다.

성경책을 혼자 읽으며 나오는 여러 인물과 이름 그리고 역사들을 누가 좀 가족관계도로 만들어주고 정리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걸 정말 손수 사모님께서 만드셔서 프린트해 오셨을 때는 제 마음을 읽으셨던 걸까요? "오-할렐루야-!"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다른 것이 궁금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고 알아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또 지루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책이 한홍 목사님께서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속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에, 반복구절이 나오면 찾아보게 되고 강정현 사모님의 '성경책 안에는 모든 답이 있다'는 말씀처럼 다시 성경 통독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다소 더디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도 저의 속도에 맞춰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고 저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도 주님의 곁으로 올 수 있도록 향기를 풀어내는 자가 되어 받은 은혜를 흘러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을 다해 매 수업을 준비해 주신 강정현 사모님과 가정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 실제로 성경 속에 빠져드는 경험이었습니다

엄정민 청년 (청년1부)



저는 영아 2부에서 아이들의 선생님이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매주 아이들과 함께하며, 어린 나이에 주님을 알아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어 보려고도 했지만, 어려운 지명과 이름들로 인해 흥미를 잃고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왕초보 성경 교육 프로그램인 SBSB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초보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주간의 수업은 사모님의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이 어렵고 길기만 한 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업을 통해 각 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도표와 다양한 사진, 그림 자료들을 활용한 설명 덕분에 성경 속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생생히 그려졌습니다. 제 안에 있던 답답함이 깨달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또한, 성경의 내용들이 단순히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고, 지금도 남아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성지순례를 통해 직접 찍어 오신 사진과 그림 자료들을 보고 약속의 땅의 젖과 꿀 중 '꿀'을 상징하는 대추를 먹으며, 성경 속 이야기들을 단순히 주입식으로 듣는 것이 아닌 실제로 성경 속에 빠져드는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는 사모님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부모님께 자랑처럼 이야기했더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빠도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아빠는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이 한 번에 정리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며 매우 만족해하셨고, 다음 기수에는 꼭 신청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SBSB 수업을 통해 귀한 배움을 얻었지만, 계속 보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귀한 자료와 깨달음을 바탕으로 꾸준히 복습하며,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께 쓰임 받는 자로 성장하겠습니다.

2025.  
03

# CES 멘토스쿨 간증

05

1. 김재환B 청년 (청년2부)
2. 전예진 성도 (W강남공동체)



##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김재환B 청년 (청년2부)



작년 말, 올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기도하던 중 CES 멘토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주일 광고 시간에 멘토스쿨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2024년은 저에게 유난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어머니는 척추 골절로 잇따라 응급실에 가셨고, 저는 간병을 도우며 순장으로서의 섬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초부터 바로 멘토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솔직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멘토스쿨에 대한 마음의 울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CES 멘토로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뻐하시고, 마귀는 결코 이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느꼈고 결국 순종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막연히 순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 첫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 불안과 의문을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제3과 믿음 교육에서 “이해하지 못해 갈등 속에 있더라도, 진정한 믿음은 몸을 움직여 순종한다”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건을 통해 주어진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된다는 사실이 제 고민과 걱정을 녹여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멘토로 섬기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순종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상황이나 어떤 멘티가 매칭될지와 같은 눈에 보이는 요소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오거나 걱정과 갈등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가 말아야 할 형제님을 멘티로 붙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으로 제 멘티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 저에게 주신 사명을, CES 멘토로서 첫 시작을 열어보려 합니다

전예진 성도 (W강남공동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여러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경험한 제게 새로운 교회의 CES 프로그램은 새로운 것은 아닐 거라고 지레짐작하며 순장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나 미뤄둔 CES 멘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시 한번 교리를 되새기고 멘토님과 삶을 나누며 느낀해졌던 저의 신앙 습관과 사명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CES 프로그램의 꽃은 멘토스쿨이었습니다. 멘토님께 배웠던 내용을 CES 프로그램의 저자이신 한 홍 목사님께 직접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 멘토님께 배울 때는 내용을 이해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멘티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니 모든 것을 적어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교리가 마음에 와닿도록 풍부한 예화를 들어 부연 설명하시는 한 홍 목사님의 강의에 큰 감탄을 했습니다. ‘역시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은 다르구나. 내가 가르쳐도 이렇게 쉽고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제가 받은 은혜를 멘티에게도 흘려보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목사님의 말씀과 예화까지 요약하여 교재 안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멘토스쿨의 첫 번째 시간 1:3과까지의 내용은 백만 번은 족히 들었을 것 같은 구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논리적이고 디테일한 것을 좋아하는 저의 TJ 성격에 종교개혁의 역사까지 들어 설명해 주시는 한 홍 목사님의 강의는 흡입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해서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며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내용을 들으며 다시 힘을 내어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제자로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하신다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도 부흥회 여러 번을 압축한 것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의 인격과 과거의 모습은 너무 부끄러워 어디 가서도 쉽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저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일 따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합니다. 초능력이 생긴 스카이버 맨의 삼촌이 ‘큰 힘에는 큰 의무가 따른다’고 말했듯이, 큰 은혜에는 큰 사명이 따릅니다.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모태 신앙 같지 않은 드라마틱한 간증 스토리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성령님께서 부여하시는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홍 목사님께서 “CES 멘토링을 왜 할까? 이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세계 복음화에 열정을 가질 것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CES 1:1 멘토링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꼭 전해야 하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정말 귀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CES 멘토로서 첫 시작을 열어보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2025.  
03

# 수요 커피브레이크 간증

06

1. 오시윤 성도 (우면공동체)
2. 박혜윤A 성도 (C강남공동체)



## 오직,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시윤 성도 (우면공동체)



수요 커피브레이크로 저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요셉 편으로 공부하게 하심도 깨달음으로 알게 해 주심도 놀랍고 놀라웠습니다. 매시간마다 저를 간증하게 하시고

간증의 시간 뒤에는 감사와 회개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아왔던 날들은 틀린 날들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철저히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을 알아갑니다. 이제는 저의 지난날들의 악으로 품었던 어리석음과 수많은 불평, 불만들과 원망들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해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의 삶으로,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 안의 삶이 상상만 해도 버터넬 힘조차 버터내야 할 이유도 없어졌을 것 같았지만 쓰나미처럼 맞닥뜨려진 그 고통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깨끗하게 인내할 수 있었던 건, 오직 믿음이었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자세도 배웠습니다. 믿음의 자세로 준비되어 있어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혜가 발휘되고 선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은혜받을 자격조차 없는 저를 살리시고, 주님을 불신하며 멀리멀리 도망쳤을 때도 함께 계셨고 지켜 주셨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어쩌면 저도 몰랐던 저의 슬픔을 먼저 아시고 미리 사랑부터 준비해 주셨나 봅니다. 이제는 제 전부이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수요 컵에서 배움의 시간들은 헛수를 거듭할수록 요셉을 닮으려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는 저를 보게 됐고, 놀라웠습니다. 주님의 손길과 더불어 도움의 손길인 인도자님과 부인도자님의 인자하심으로 사랑도 함께 받으며 나눔의 시간이 더욱 따뜻했습니다. 인도자님께서 그냥 말없이 안아 주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토록 그리워했던 주님품에 안긴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낸 요셉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잘 이겨내고 있다고 축복의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며, 나눔을 함께한 자매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매시간마다 말씀 묵상 뒤에 간증의 릴레이로 은혜 충만으로 넘쳐나게 채워 주셨고, 3시간도 모자라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설렘의 수요일이었는데 생각나고 그리울 것 같습니다. 수요 컵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놀라울 정도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분명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는 자녀로, 요셉에게 배운 지혜로 믿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여 지길 기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겠습니다!

## 징검다리와 같이 은혜의 길을 놓아주시는 하나님

박혜윤A 성도 (C강남공동체)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청한 두 번째 컵. (원래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과 같은 인도자님, 같은 조, 지난번에 함께 은혜 나누었던 자매님들 얼굴도 보였습니다.

마치 잠깐 방학하고 다시 시작하는 모임 같았고, 순예배 방학 기간에 이렇게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 나를 넣어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들 이야기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부터 자주 들던 부분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후에도 귀히 쓰임 받고 결국에 가족들을 다시 만난 요셉 스토리는 제 머릿속에 인간극장의 인생역전 스토리 정도로 기억되어 있었습니다. 제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한 발 떨어져 늘 눈으로만 읽고 넘어간 탓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10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요셉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야곱의 무너지는 심정과 요셉의 상처가 보였습니다. 때때로 괴롭고 힘든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라 그 생각에 묻혀버릴 것 같은 때가 있는데, 어린 나이의 요셉도 어쩌면 과거의 힘든 기억들을 한참을 안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 후에도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세상에 선포했듯 지난 일들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내 성격이 어떠한건, 내 상황이 어떠한건, 그 상처가 누

구로부터 왜 온 것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것들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눈치 없는 요셉처럼 나도 나의 자색옷을 입고 누군가의 앞에서 뽐내지 않았던가를 생각하니 내가 상처받았다 생각한 사람들에게 도리어 내가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컵을 하면서 목사님의 요셉 설교 시리즈를 함께 들었는데 많은 것들이 정리되며, 제가 놓치고 있던 빈칸들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주일 설교에서도 요셉 이야기를 통해 상처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쏟아붓듯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주님 덕분에 한 눈팔 새가 없이 6주가 지난 것 같아 감사할 뿐입니다. 주일예배부터 수요일예배, 특새 말씀들, SBSB, 컵의 말씀들은 마치 징검다리와 같이 제 앞에 와서 하나씩 놓이고 있었습니다. 올해 말씀 뽑기의 제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 하리로다”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제가 그 길을 가는 데에 또 한눈을 팔고 주저앉을까 봐 길을 놓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 컵을 기대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하며, 올 한 해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  
03

# 뉴젠 초등부, 고등부 수련회 간증

07

1. 권시아A 학생 (뉴젠 초등부)
2. 조수아A 학생 (뉴젠 초등부)
3. 백 솔 학생 (뉴젠 초등부)
4. 박병훈 학생 (뉴젠 초등부)
5. 오윤서 학생 (뉴젠 고등부)
6. 윤지우B 학생 (뉴젠 고등부)





권시아 학생 (뉴젠 초등부)

이번 겨울 수련회는 1박 2일이라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는 활동이 많아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시작으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전부터 기억나지는 않지만 기억해 보면 인상 깊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코너학습 중에 많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협력하고 깊게 생각하며 활동하다 보니 친구들과 선생님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했던 도미노 게임을 친구들과 협동하면서 완성하니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성공하진 했지만, 많이 웃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급식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탄단지 비율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야채는 안 먹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숙소도 따뜻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집 마냥 뒹굴어도 편안했습니다. 애들이랑 작게 수다 떠는 것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원봉사 선생님들, 조 선생님들과 밴드 선생님들, 전도사님 등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게 살도록 계획하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것을 깨달은 수련회였습니다.



조수아 학생 (뉴젠 초등부)

처음 수련회를 가기 전에는 '재미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와보니 재미있었습니다. 대그룹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도 더 친해졌습니다. 코너학습에서 조끼리 협동해서 게임을 하니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더 많은 의미를 느꼈고 무엇인지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백솔 학생 (뉴젠 초등부)

이번 겨울수련회에서는 바울이 고난과 역경을 뚫고 기쁨과 감사로 스스로를 채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수련회에서는 제 자신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맛있는 점심, 저녁, 간식 등을 잘 먹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또 1박 2일 동안 고생하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계속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고통은 잠시지만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퍼트리고 싶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겨울 수련회를 위해 우리의 선생님을 맡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박병훈 학생 (뉴젠 초등부)

이번 수련회가 새로운교회를 다닌 후로 온 첫 번째 수련회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오고 나서 동생, 엄마, 아빠가 많이 그리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니 적음이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도착하고 오프닝 예배, 줄다리기, 겁 쌓기 등을 했는데 그중 줄다리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맨 뒤에서 몸무게를 실어서 이긴 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시간표를 보니 3시간이라서 정말 힘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찬양부터 저절로 울동이 나오는 듯했습니다. 웬지 모르게 설교 시간에도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겨울수련회를 이제 처음 했다는 게 아쉽기도 했습니다.

## 이제 제 삶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으며, 저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윤서 학생 (뉴젠 고등부)



저는 사랑하는 법도, 사랑받는 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기에 늘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서도 눈치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의 사랑만을 좇던 저는 마음속에 점점 더 큰 공허함이 생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자기 비난으로 인해 인간관계는 점점 버겁게 느껴졌고, 기도조차 괴로웠습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하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썼지만 제 모습은 껍데기뿐인 신앙인 같았습니다. 주일에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교회 밖에서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는 저 자신이 너무 모순적이라 끔찍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지친 제가 수련회에 가는 것이 맞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부모님과 갈등도 있었고, 할머니의 병세가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이번 수련회 기간이 가장 큰 고비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에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련회에서 주님께서 저를 놀라운 은혜로

만나 주셨습니다. 저녁 집회시간, 주님은 저의 걱정과 불안을 무색하게 하시며 뜨거운 회개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째서 외로워하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제 모든 고민과 상처를 알고 계셨음을, 그리고 제가 항상 주님께 “만나달라”라고 기도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기도였음을요. 주님께서는 늘 제 곁에 계셨지만, 제가 세상을 바라보느라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는데, 더 무슨 사랑이 필요하겠는가?’라는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제 안의 혼란과 불안은 주님으로 인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평안이 채웠습니다. 그 이후로는 감사의 기도만이 나왔습니다. 마음속 공허함은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졌고, 저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은 이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제 삶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으며, 저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믿습니다.

##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졌습니다

윤지우B 학생 (뉴젠 고등부)



이번 수련회에는 갈지 말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생이 되고 난 후 첫 번째 수련회라 그런 고민들이 더 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번 수련회는 고등학생이 되어 학업에 치이던 저에게 일종의 도피 수단이었다는 같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고민들 속에도 정작 ‘하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기독교시라 저는 흔히 말하는 모테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새벽 기도나 예배도 두세 번씩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진심이었지만, 코로나가 터진 이후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탄피도 많이 하고 예배에 집중을 하지 않는, 예배에 대한 열정의 불씨가 꺼진 저의 모습을 어느 순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꺼져가는 불씨에 어떻게든 불을 붙이려고 저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동안 새벽기도도 많이 나가 보고 혼자서 성경을 읽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모든 말씀들이 마치 너무나도 먼 얘기인 것처럼 전혀 와닿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가고 결국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긴 할까?’라는 의문까지 도달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왜 그랬

을까 싶긴 한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난 후에는 많이 벗어나 반항도 많이 하고 하면 안 될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를 이런 상황까지 내몬 것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점점 미워하고 불신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하나님을 믿는 영향으로 중등부 때 수련회를 모두 참석했는데 솔직히 다른 친구, 선배, 동생들이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로 이런 제 생각들에 큰 변화는 아니어도 작은 변화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배 첫째 날은 집중도 못하고 즐기만 했던 것 같지만 둘째 날은 최대한 집중해서 끝까지 즐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한 가지만을 기도했습니다. 저를 만나달라고, 전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말 만을 수십 번씩 반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제 눈시울이 조금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찬양이 이렇게까지 와닿고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은 기분은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주님이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게 해 준 이번 수련회와 전도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2025.  
03

#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 소개:

08

월드비전





# 아파하는 마음으로...

젊은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모임인 YFC(Youth For Christ)를 창립한 밥 피어스와 빌리 그래함은 1949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교회의 삼백만 구령 운동에 참여하게 되며, 영혼 구원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어 오늘날에도 교회의 전도와 선교 사역에 중요한 역사적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밥 피어스 선교사는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복음을 전했던 한국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미국 교회를 돌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고아와 남편을 잃은 여성들을 돕기 위해 헌신했으며, 이러한 '아파하는 마음'으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와 뜻을 함께하여 월드비전을 설립하였습니다.

밥 피어스 선교사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월드비전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글로벌 NGO로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서 가장 취약한 아동과 가정, 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종교, 인종, 민족, 성별에 관계 없이 사역을 진행하며,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 월드비전 사명선언문

월드비전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과 함께하며, 우리의 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기독교 국제협력기관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인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 월드비전 사명선언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응답합니다.

# 월드비전 사역 기도 제목

1. 월드비전한국을 이끌고 있는 조명한 회장님과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 올해 7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월드비전 한국의 사역자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으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심장을 소유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3. 국내사역, 해외사역, 북한사역 중 특별히 월드비전 북한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최근 트럼프 정부 하에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이 일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군의 국제적 움직임과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특히,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군사 협력을 진행하는 등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제 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전달될 수 있는 협력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세요.

2) 남북 간의 협력과 신뢰가 회복되며, 대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세요. 대북제재의 완화가 월드비전이 준비 중인 지원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북한의 주민들, 취약계층(특히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 월드비전 북한 사역 소개

1. 긴급구호 사역(1994~): 극심한 식량난 및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 영양 사역(1996~): 탁아소/유치원 아동들에게 국수/빵/콩기름 등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매년 600톤 이상의 밀가루를 전달해 5만 명 아이들에게 국수와 빵을 먹입니다).
3. 농업(식량안보) 사역(2000~): 식량난 해소를 위한 씨감자, 채소, 과수를 생산하고 농학자들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4. 식수(WASH) 사역(2006~): 열악한 농촌 지역에 식수 및 위생 시설을 설치합니다(이로서 북한 농촌마을 7개 지역 2만여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월드비전 해외사역, 통전적 선교의 변화 이야기

월드비전은 한 마을에 15년에서 20년 동안 머물며, 함께 울고 웃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슬람 문화가 강하고, 복음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월드비전의 사역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00 마을에 살던 한 청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핍박과 두려움 속에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그는 월드비전이 자신의 고향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한때 무슬림이던 그의 마을 사람들 중 65%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삶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교회

## 2025년 1학기 공동체 개강예배

**일 정** : 2025.3.11(화)-14(금), 오후 7:30

**참여방법** : 소속 공동체의 해당 요일과 장소를 확인하시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N강남 : 새로운홀1(7층)  
S서초 : 새로운홀2(6층)  
우 면 : S하우스



N서초 : 새로운홀1(7층)  
E강남 : 새로운홀2(6층)  
C강남 : S하우스



강 북 : 새로운홀1(7층)  
E서초 : 새로운홀2(6층)  
W서초 : S하우스



S 강남 : 새로운홀1(7층)  
W강남 : S하우스

Wednesday Prayer Worship

### 3월 수요기도예배 공동체

3/5 김정현 목사	3/12 조은영 목사
3/19 이준희 목사	3/26 이아론 목사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문의 조은영 목사 choeunyoung@saeroun.net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6길 56 삼준빌딩 3층

---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EB** [www.saeroun.net](http://www.saeroun.net)